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시간의 흔적을 통한 심상표현 연구

- 염색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서 유 민

논문 개요

예술작품이란 인간의 경험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지의 시각화 과정은 인간 자신 속에 축적되어 있는 조형언어를 발견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은 자기로부터의 출발이며 예술가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표출되어 독자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을 위한 하나의 제시로서 인간의 삶 속에서의 시간에 관심을 가졌다.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신체로 지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지나가 버린 시간은 잡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현재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미래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지나간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과거의 존재를 믿고, 기대를 통해 미래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시간은 인간존재의 조건이다.

본 연구목적은 지나간 시간은 현재의 존재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실존 안에서 시간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흔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의 심상을 이입하여 조형화된 예술적 표현으로 모색하는데 바탕을 두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1)시간의 개념	3
2)미술로 표현된 시간	6
3)시간의 상징성	10
2. 작품제작 및 분석	
1) 작품제작	12
2) 작품분석	14
III. 결론	31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아름다운 이름으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129×49cm×2, 2003 14
- 【작품 2】 기억, 견섬유(Silk), 산성염료, 131×81cm, 2003 17
- 【작품 3】 아름다운 기억, 견섬유(Silk), 산성염료, 132×52cm×2, 2003 19
- 【작품 4】 흔적, 견섬유(Silk), 산성염료, 81×75cm, 2004 21
- 【작품 5】 시간의 흐름속으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118×80cm, 2004 23
- 【작품 6】 시간의 흔적, 견섬유(Silk), 산성염료, 127×85cm, 2004 25
- 【작품 7】 시간과 공간, 견섬유(Silk), 산성염료, 153×62cm×3, 2004 27
- 【작품 8】 시간 속으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163×74cm, 2004 29

도 판 목 차

【도판 1】 Pablo Picasso, <나의 쾌>, 캔버스 유채, 100×65.4cm, 1911

【도판 2】 Giacomo Balla,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
캔버스 유채, 90.8×110cm, 1912

【도판 3】 Salvador Dali, <기억의 영속성>,
캔버스 유채, 24×33cm, 1931

【도판 4】 Pollock, Paul Jackson, <라벤더 안개 : 넘버 1>,
캔버스 유채, 221×300cm, 1949

【도판 5】 Vincent Van Gogh, <론강의 별 달밤>,
캔버스 유채, 72.5×92cm, 1888

【도판 6】 Monet, Claude, <아르장퇴유의 다리>,
캔버스 유채, 480×357cm, 1874

【도판 7】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전함 테메레르>,
캔버스 유채, 90.8×122.6cm, 1829

【도판 8】 Friedrich, Caspar David, <도시의 월출>,
캔버스 유채, 458×620cm, 1817

I. 서론

1. 연구목적

시간은 흐르는 과정 속에서 파악되고 인간은 그 흐르는 시간 안에서 존재한다.

시간 내의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과 같이 늘 변화하며 일상생활 속의 축적을 통해 시간의 흔적을 남기며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과거는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먼 과거를 말한다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곧바로 과거가 되고 현실은 바로 지나가는 시간으로서의 과거가 되어버리기에 우리가 말하는 현재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낳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시간의 흔적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다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motive)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시간의 흔적을 통해 인간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경험을 총체(總體)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경험의 총체화를 위하여 과거 시간의 흔적을 이끌어 내므로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이라는 창작 행위로 조형화 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시간의 흔적을 모티브로 한 본인의 작업은 시간에 얽매어 살아가는 인간들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의지와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을 표현하므로 인간의 존재의식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새로운 조형적 개념을 유도해 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개념을 고찰(考察)하고 시간과 관련해서 전개된 회화 작품들을 통해 예술가들은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본인이 느낀 시간을 조형화 하여 그로 인해 생성된 상징적 이미지를 염색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존재가 그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축적하며 변화해 가는 모습이라는 내용을 서술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과 축적이 제시된다. 특히 곡선을 이용한 형태의 반복과 축적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며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흔적'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공간 안에서 깊이 감을 나타내고자 했다. 시간의 흔적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고 계속 변화 가능하고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본인 내면 의식을 미적인 방법으로 조형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본 론

1. 이론적배경

1) 시간의 개념

시간은 인류역사이래 우리와 늘 함께 해왔으며 우리의 삶과는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시간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시간정의의 합의에 도달하는데는 실패하였다. 그것은 시간이 인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경험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간에 대한 문제를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 Aurelius, A.D.354-430)는 그의 저서 <고백론>에서 “시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로부터 물음을 받지 않는 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막연하게 되는 것이다”¹⁾라고 하여 시간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실재(實在)라고 말하고 있다. 즉 시간은 언뜻 보면 자명한 개념이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실로 복잡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설명하기 애매한 시간의 특성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하소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으로

1) 모리스, R. 「시간의 화살」, 정운진, 김현근 (공역), 소학사, 1996, p.6.

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시간은 늘 모호하며, 당황스럽고, 만질 수 없으며,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친숙하면서도 신비스러운 것이다.²⁾

그러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기반으로 시간의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 대한 시간의 흔적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다. 즉 시간의 흔적은 다양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한 경험 속에서 형성되며, 현대의 생활 안에서 수 없이 분열되는 자신을 확신시키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시간에의 관심은 본인의 작업에서 기본이 되는 동시에 전반적인 배경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서 이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크게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 기억과 시간의 흔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물리적 시간 · 심리적 시간

물리적 시간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흐르며 연, 월, 일 등 일정한 척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시간의 길이로 오직 현재라는 시간만이 존재하며,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리적 시간은 뉴턴(Newton, Isaac, 1642~1727)의 고전 물리학<자연철학의 수학적 윤리>에서 절대 시간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이 절대적 시간은 세상에서 일

2) E, 클랭. 「시간」, 박혜영 역, 영림카디널, 1997, p.8.

어나는 모든 사건과 관계없이 무한히 흘러가는 객관적이고, 측정되는 정량화 된 시간이다.

심리적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는 달리 개인의 경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주관적인 시간이다. 같은 길이의 시간일지라도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의 느낌은 무척 다르다. 또한 무엇인가에 열중했을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와 같은 시간을 심리적인 시간이라 한다.

이와 같은 시간은 모든 상황의 존재 조건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현실적으로 흐르는 물리적 시간과 개인이 체험하는 시간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시간이란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며, 인간의 의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2) 기억과 시간의 흔적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나 변함 없이 흐르는 시간성을 느낀다.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현상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인간의 경험 가운데도 시간의 경험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광범위하고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것이다. 시간은 경험과 주관적인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감정적, 심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경험에 의한 체험들이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은 기억(연상)에 의해서 이다. 또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나 순간만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지는 순차적인 구성 외에 각각의 개인들에 의해 재구성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다.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없어지게 되고 때때로 없어진 흔적 위에 또 다른 흔적이 생겨나기도 한다.

시간의 흔적 역시 현대에서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시간성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흔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불변하는 상태가 아니라 변화와 비교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기억은 과거의 시간을 지속시키며, 우리의 의식속에서 변형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기억은 인간의 의식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지속이며 자아의식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는 기억속의 이미지들을 통하여 현재가 기억하는 과거 시간의 흔적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억이란 곧 시간이고, 시간속의 경험들이므로 시간의 흔적을 표현한다는 것은 기억을 표현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은 회상의 기억들을 통하여 느껴지는 정서를 개념과 상징의 시각언어로 시각화하여 감정을 이미지화 시키고자 했다. 과거 시간의 흔적을 통해 얻어낸 많은 기억들은 인간의 감각 활동과 존재 의식을 규명(糾明)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 미술로 표현된 시간

미술은 근본적으로 시각에 의한 예술이기에 시간이 이미 미술의 근본 배경이 되고 있다. 미술에서의 시간은 같은 형태로 흐르는 시간과는 다르다.

창조적 작용으로서의 시간은 미술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

었다. 회화에 있어서 시간은 새로운 전개를 예고하는 것으로 사물과 사건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시간에 따라 그 이미지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회화 작품들에 표현된 조형예술에서의 시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하고 사용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입체주의(立體主義-Cubism)자들은 여러 시간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단일한 화면에 동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미 시간의 지속적인 성질을 나타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시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그 시간이 다르다. 이 경우는 공간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관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상의 이미지는 공간에 따라 달라지며 공간들은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입체주의 회화에서는 고정된 시간과 공간에 놓여진 확실히 이해될 수 있는 실재성이 무너졌다.

과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작품<나의 퀘(1911)>[도1]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을 조각놀이의 조각들처럼 재배치하여 공간과 시간의 다른 단편들을 옮겨 놓았다.

입체주의자들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진행시킨 반면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미래주의(未來主義-Futurism)자들은 시간을 분석하였다. 미래주의의 중심은 감상자가 '현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는 시간의 동시적 시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1912)>[도2]에서 자모코 발라(Giacomo Balla, 1871~1958)는 연속된 시간의 토대를 겹침에 의해 움직이는 동작과 에너지로 캔버스를 채웠다. 네 다리를 가진 개를 그렸다가 보다는 각 다리를 움직임과 드러남의 희미한 형태로 만들었다. 발라는 오랫동안 축적된 시간의 재현에 관계된 전통적인 관례들을 용해(鎔解)시켰다. 그

는 유동적(流動的)인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흐르는 듯한 붓질을 했고, 그의 이미지속에서 시간을 잘 중첩(重疊)³⁾시켜 표현했다. 미래주의자들에게 신성시되어 왔던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공간을 여행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미래주의자들은 그들 이전에 있어 왔던 모든 정지된 관념들을 없애기 위해서 속도를 탐구했다. 그들은 동시성의 개념을 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의 그림에서 시간을 토대로 많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섬광(閃光)처럼 명확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입체파들의 복잡한 화면의 구성, 미래주의의 시간성을 판독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꿈꾸는 동안 경험했던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는 쉽게 인정 할 수 있었다.

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Surrealism)화가들 또한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다. 꿈과 무의식의 화면 속에서 형상들을 자유롭게 연합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력을 발휘하였다. 인간의 정신 속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이 초현실주의자들의 바탕이었는데⁴⁾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상상을 통한 이미지의 융합(融合-Fusion)이었다.

초현실주의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1904~1989)는 그의 작품<기억의 영속성(1931)>[도3]에서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상징, 즉 시계들과 모래를 병렬했다. 화면 속의 시계들은 시간의 모래들을 닮은 방대한 해안과 혼합되어 있고, 모래, 모래시계들 그리고 시계들 모두는 감상자의 마음이 시간의 본질과 의미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흘러내리는 시계들은 시간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시간의 연속(連續)’이라는 이미지를 나타

3) Leonard Shlain. 「ART & PHYSICS 1」, 김진엽 역, 도서출판국제, 1995, pp.244~254.

4) 힐슈베르크. 「서양철학사하권 : 근세와 현대」, 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1996, p.807.

낸 것이다.

또한 추상표현주의(抽象表現主義-Abstract Expressionism)의 대가 잭슨 폴록(Pollock, Paul Jackson, 1912~1956)은 그의 창조적인 작업을 일상적인 방향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이차원의 공간과 직선적 시간의 내용에 존재하는 '대상'을 창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원했다. 그의 격양된 몸놀림으로 튀기고, 던지고, 흔드는 그의 붓놀림은 현재의 순간에서 행하여진 심리적인 운동의 기록이다. 잭슨 폴록의 후기 작품<라벤더 안개 : 넘버1>[도판 4]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선들, 서로 겹치고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구부러져 공간을 에워싸고 있는 선들은 그 활동의 기록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휘갈린 것 같지만, 이런 그림에는 거의 환각을 일으키는 명징(明澄)함이 있다.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엇갈리고 겹치면서 시간적 생동감을 주는 선들에 대한 강렬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⁵⁾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많은 작가들이 시간에 대해 다루었지만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여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표현은 특성을 가지고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3) 시간의 상징성

인간의 삶은 시간의 경험이며 일상생활의 축적으로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여 왔다. “인간은 끊임없는 미지의 바다로 던져지는 존재이다.”라고 프랑스의 철인(哲人) 콩티(Contie)는 설파(說破)한 바 있다. 굳이 형

5) 메이탄드 게이브. 「디자인과 색채」, 배만실 역, 이화여대출판부, 1983, p.207.

이상학적 철학을 비유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터득한 진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가능한 이유는 시간의 동적인 변화과정, 즉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는 미래를 창출한다.”는 그 자체로서 예언적인 사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자신의 위치와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나’에게로 이르려는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현실세계에서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 존재의 모습과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고독한 인간들의 모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기억 속의 연상 이미지들을 되새김으로써 다시 여유와 잔잔한 미소로 현실에 융화하며 보다 나은 미래로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삶의 개별적인 모습들은 시간 속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며 기억, 흔적 등이 담긴 하루 하루가 모여 전체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하루 하루의 시간의 흔적은 모두 소중한고, 그 자체로써 가치가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간은 경험과 주관적인 기억을 통해 존재하는 감정적, 심리적인 시간이다. 무심코 지나가는,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 그것이 평범할 지라도 그 속에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담겨있음을 본인은 ‘시간의 흔적’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은 어디에서나 존재(存在)하고 있으며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시간은 우주와 우리들 자신과의 너무도 밀접한 관계로 해서 시간을 따로 고립시켜 정의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저항(抵抗)한다. 시간은 사물의 보이

지 않는 영(靈)처럼, 확고부동의 진리처럼 우리들이 겪는 경험을 따라다닌다. 이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상의 수준보다 더욱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시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⁶⁾

예술은 '기억'과 '경험'이라는 두 개념에 의해 창출되는 인간활동이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자인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예술은 실제적인 인생의 경험 안에서 생긴다”⁷⁾라고 말했듯이 시간의 개인적 지각은 '경험'이라는 무수한 사유(事由)속에서 파악된다.

본인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험에 의해 기억된 시간의 흐름 속의 이미지들이며 시간의 흔적을 담아 자아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에 의한 경험들의 주체적 수용과 과거의 경험들로 인한 기억의 재생은 인간의 감각 활동과 존재의식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6) 로버트 그루딘. 「시간 그리고 삶과 예술」, 박창욱 역, 정음사, 1985, p.3.

7) 조용한. 「예술 철학」, 경문사, 1983, p.275.

2. 작품제작 및 분석

1) 작품제작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일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사람의 기억은 마치 필터와 같아서,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들은 의외로 쉽게 잊혀지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은 더 생생하고 오래 남는 것 같다. 세월이 흐른 후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해보면 그 시간들이 무척이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재(不在)의 대상'으로서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표현되어지는 이미지들은 인간 내면의 일상과 정서, 그리고 관념에 작용하는 시간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시간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있어서 본인은 다른 회화와는 구분되어질 수 있는 염색을 선택하였다. 염색할 재료로 동물성 섬유중 견직물(Silk)과 채도가 높아 색상 표현이 선명한 산성 염료를 사용하였다. 본인의 주제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견직물 중에서도 잔잔한 무늬가 있는 이중직(二重織)을 선택하여 색상의 깊이 감을 더해 염색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표현 방법으로는 염색기법의 방염법중 주로 납방염을 사용하였다. 방염이란, 염색하지 않을 부분에 염료가 침투하여 염색되는 것을 막아주며, 원하는 색으로 밑그림을 그려 아름다운 조화를 창조해 내는 방법이다. 납방염은 녹여서 액체상태인 파라핀과 밀납을 천에 일정한 부분에만 스며들게 붓 칠한 다음 염액을 직접 칠하거나 담그는 방법으로 무궁무진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

작품제작에 앞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염색하고자 하는 천 중량의 25~

30배 가량의 물을 넣은후 60℃~70℃를 유지시킨다. 그 후 무기세제(가성소다, 탄산소다, 붕사, 규산소다), 비누를 사용하여 천의 무게의 3%정도를 넣어 40~50분간 담근 뒤 천을 충분히 씻어 구김이 가지 않도록 건조시켜 사용한다.

정련(精練)되지 않은 천은 염색시 염료의 침투를 방해하고 균일한 염색을 할 수 없게 하여 섬유 가공처리에 곤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염색 전에는 섬유에 알맞은 정련. 표백제로 반드시 정련 및 표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한 천을 사각틀에 팽팽하게 고정시킨 후 밀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파라핀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부터 방염하여 색감을 낸다. 여러번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 염색하여 원하는 농도의 색상이 나오면 후처리를 한다.

납방염의 후처리는 방염한 천에 묻은 납의 양이 많을 때에는 먼저 두껍게 칠해진 납을 털어서 일부는 제거하고 나머지 납은 오래된 신문지나 갱지를 사용하여 염색물의 위아래에 놓고 다림질하여 이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여 납을 제거한다. 납이 다 제거된 작품을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대고 돌돌 말아 증열기에 넣고 100℃ 이상의 고온에서 60분 정도 증열 처리한 후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수세 후 벤젠이나 휘발유를 이용하여 납을 완전히 제거한다. 견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착제(물1ℓ:5cc)에 약 30분간 담가 깨끗이 수세한 후 다림질하여 마무리 손질한다.

이러한 재료와 기법들은 본인의 주제 표현을 위한 하나의 제작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한 현실이나 자기인식 속에 내재해 있는 내적 형태를 예술적 형태로 표현하여 현재상황의 한계(限界)를 극복한 새로운 자아의 회복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함이다.

2) 작품분석

【작품 1】 아름다운 이름으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129×49cm×2, 2003

【작품 1】 아름다운 이름으로 (2003)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129×49c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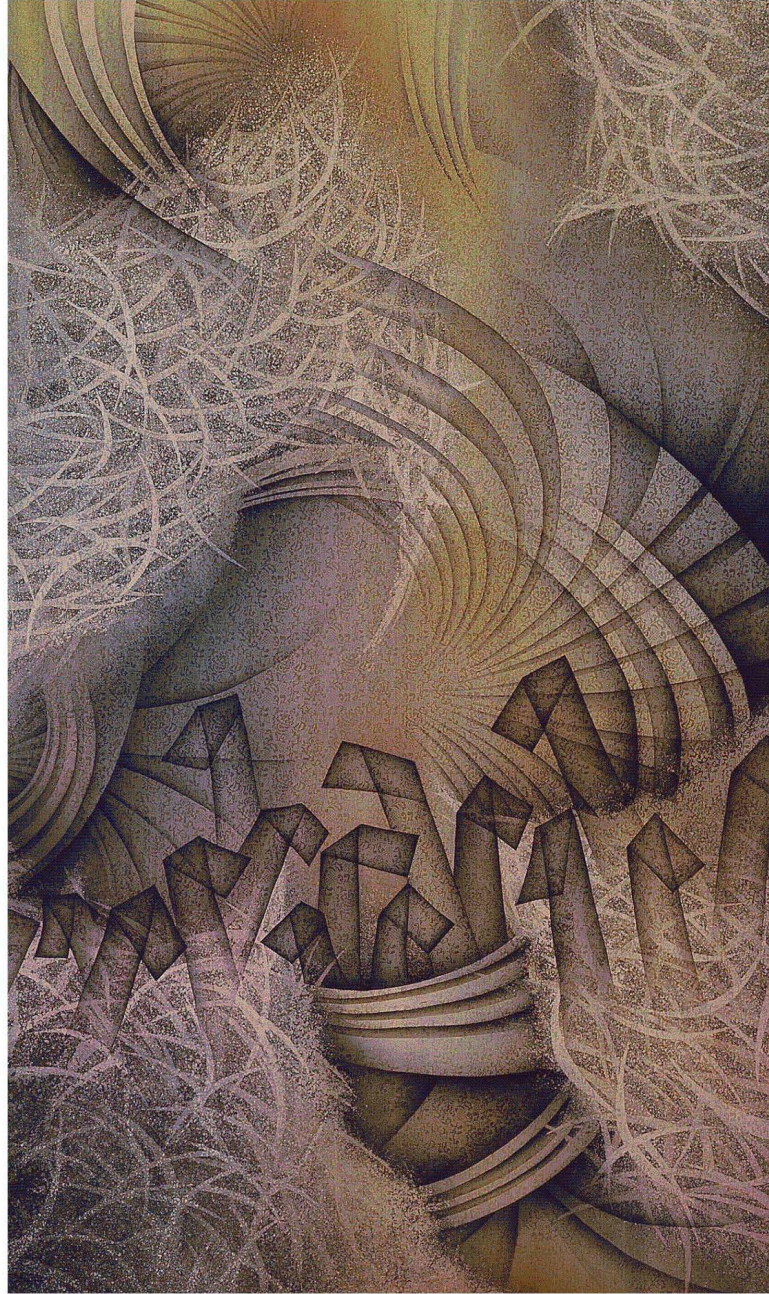
시간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관심사는 시간의 흔적을 통해서 기억에 내재되어 있는 정서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시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듯이, 시간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기억, 그것은 곧 시간의 흔적이다. 시간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미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억을 재사용 하여 상상력으로부터 이미지를 형성하고 시각적으로 기호화 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시간에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게된 계기가 된 작업이다. 배경 화면에 기하학적인 곡선의 반복과 축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느낌을 더 가미하였으며, [도5,6,7,8]에서 보여지듯 시간의 흐름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색들은 앞으로의 작업에 기초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특징만 기억되고 크게 와 닿던 실체도 공간의 원근법에 따라 그 특징마저 단순화되어 점으로 지각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간의 흔적은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뿌리기 기법으로 배경전체에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흔적을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화면 전체에 나타나는 직선들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향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 따뜻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일상적인 현재의 삶 속에 자기반성의 태도가 전제된다는 의미로 오렌지색(Orange), 갈색(Brown)을 사용하였고 청색(Blue)이 두드러져 있는 화면은 차가우면서도 끝없이 긍정적으로 열린 미래 지향적 세계로의 가능성과 상상적 공간으로서의 이동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하단 회색(Gray)톤의 하나 하나의 형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색을 잃고 퇴색하여 그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 세월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품 2】 기억



견섬유(Silk), 산성염료, 131×81cm, 2003

【작품 2】 기억 (2003)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131×8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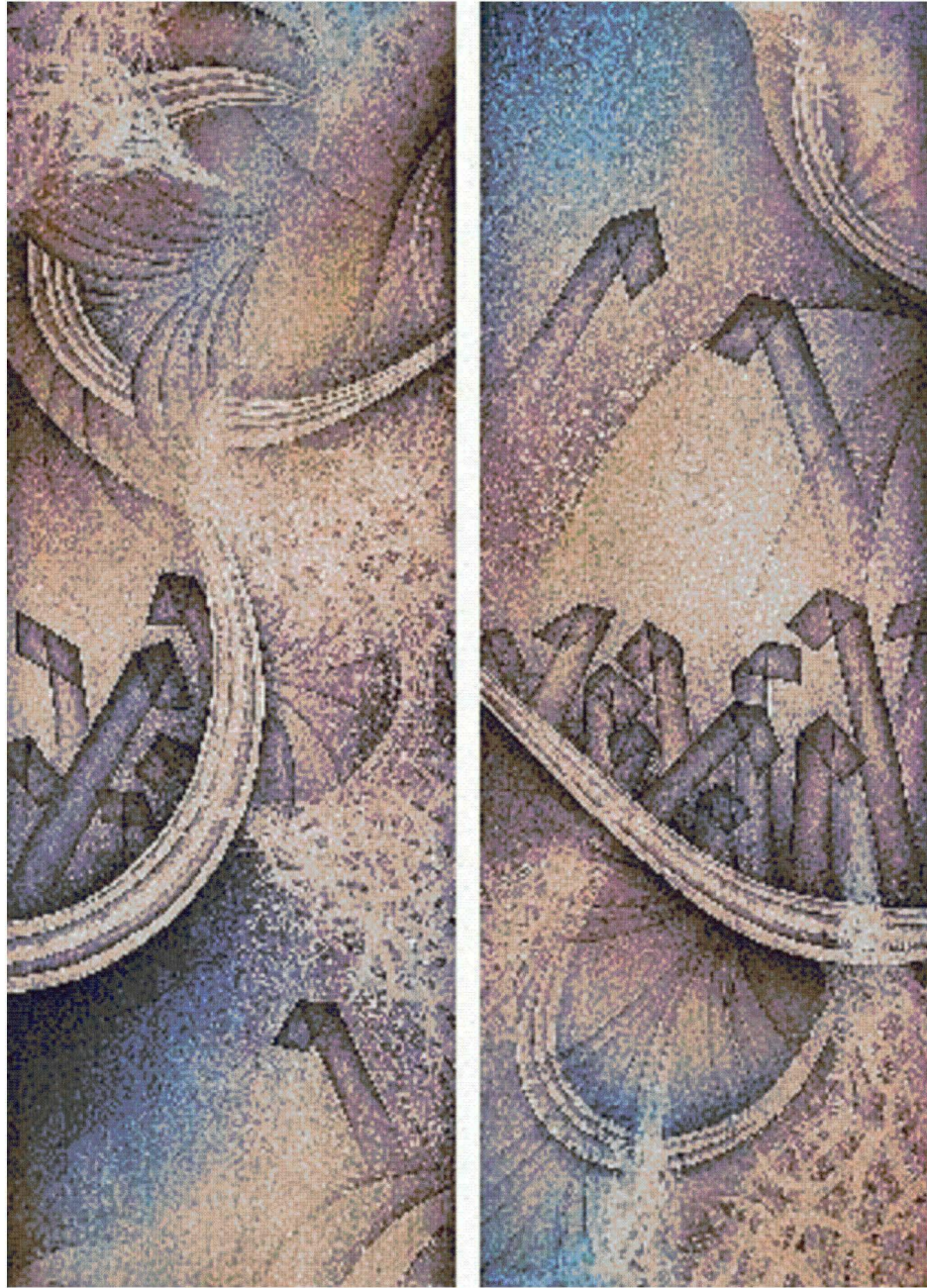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연속적인 흐름을 경험하는 것이다. 시간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탕으로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로 짜여진 지속의 개념을 포함하고있다. 이 작업은 지속을 통해 순환하는 시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시간과 함께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반복해서 다시 회생시킬 수 있다. 체험이 깊을수록 의식 속에 각인되는 인상도 깊고, 기억도 선명하다.

배경 화면에서 보여지는 곡선은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하학적인 곡선의 반복과 축적은 잊혀졌던 기억의 잔재를 상징화한 것이다. 이렇듯 시각적으로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 보여지고, 내적으로는 수많은 순간을 겪으며 지내온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다.

황색(Yellow), 오렌지색(Orange), 적색(Red), 갈색(Brown)이 혼합된 색의 표현은 따뜻하고 생동력이 넘치는 건강한 일상적인 삶의 기억을 표현하였으며 현실을 수용하는 관대함을 의미하였다. 청색(Blue), 회색(Gray) 조화의 어두운 면은 과거로 기억이 점차 흐릿하게 잊혀져 감을 의미하고 잊혀진 추억을 되살리는 기억의 표현인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의 시간들을 위해 현실적 절망감, 고독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나타내었다.

【작품 3】 아름다운 기억



견섬유(Silk), 산성염료, 132×52cm×2, 2003

【작품 3】 아름다운 기억 (2003)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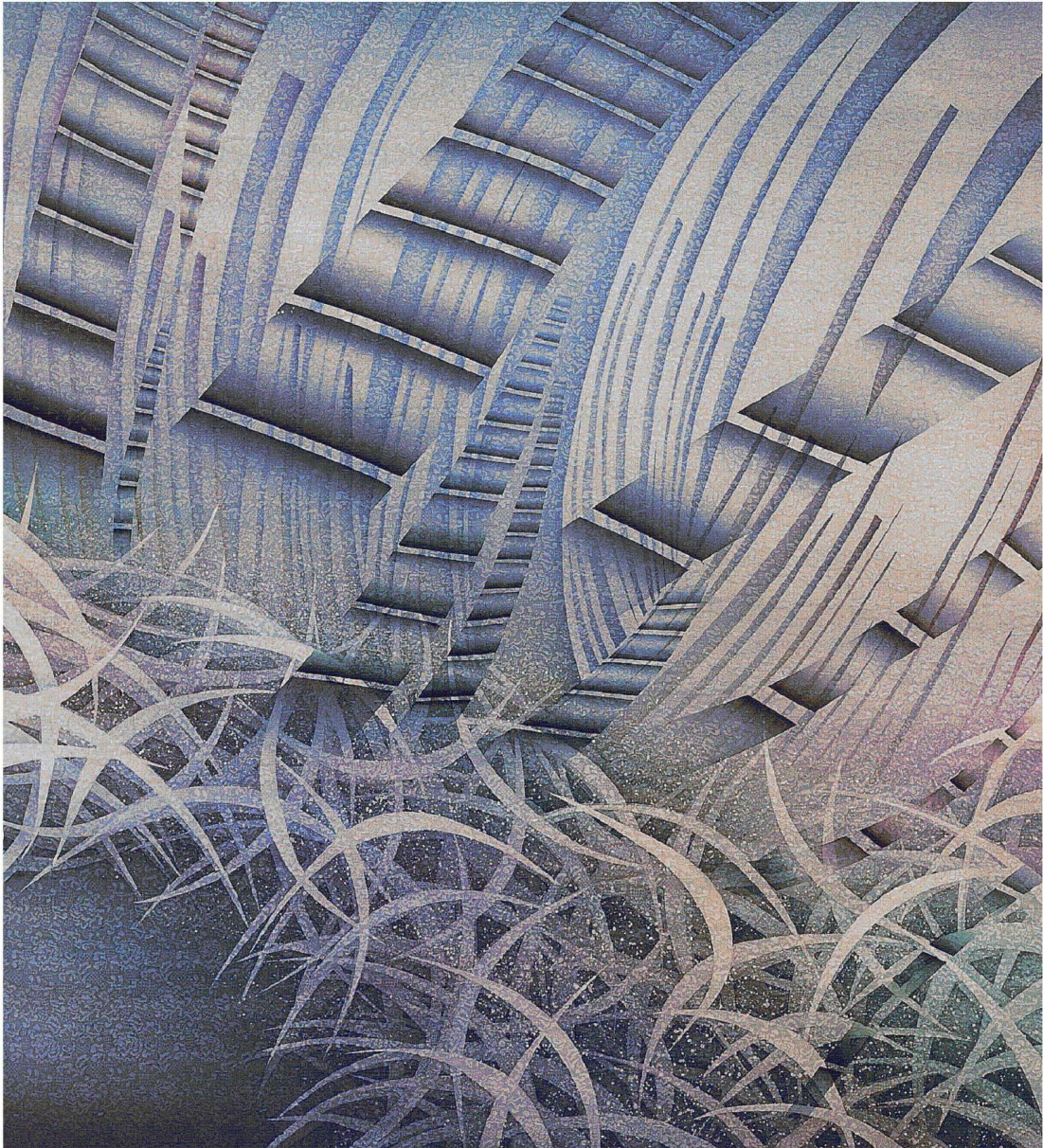
크기 : 132×52cm×2

존재는 항상 변화하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는 시간의 관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는 소멸이며 과거의 힘에 순응에서 기인하는 현재의 출현을 뜻한다. 또한 과거 하나 하나의 계기가 현재의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 근원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과거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현재를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상황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업에서 시간은 시간 그 자체라 하기보다는 경험된 시간, 체험된 시간의 기록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 율동적인 곡선은 나의 눈을 통해 체감되어진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이다. 이 곡선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지나간 기억의 일부를 도입함으로써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나간 삶의 흔적을 통해 현재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하였다.

배경 전체에 주로 드러나는 황색(Yellow)과 보라색(Violet)의 대비는 지나버린 순간적인 추억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청색(Blue)은 희망적이며 순수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여 본인의 희망을 나타내었다.

【작품 4】 흔적



견섬유(Silk), 산성염료, 81×75cm, 2004

【작품 4】 흔적 (2004)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81×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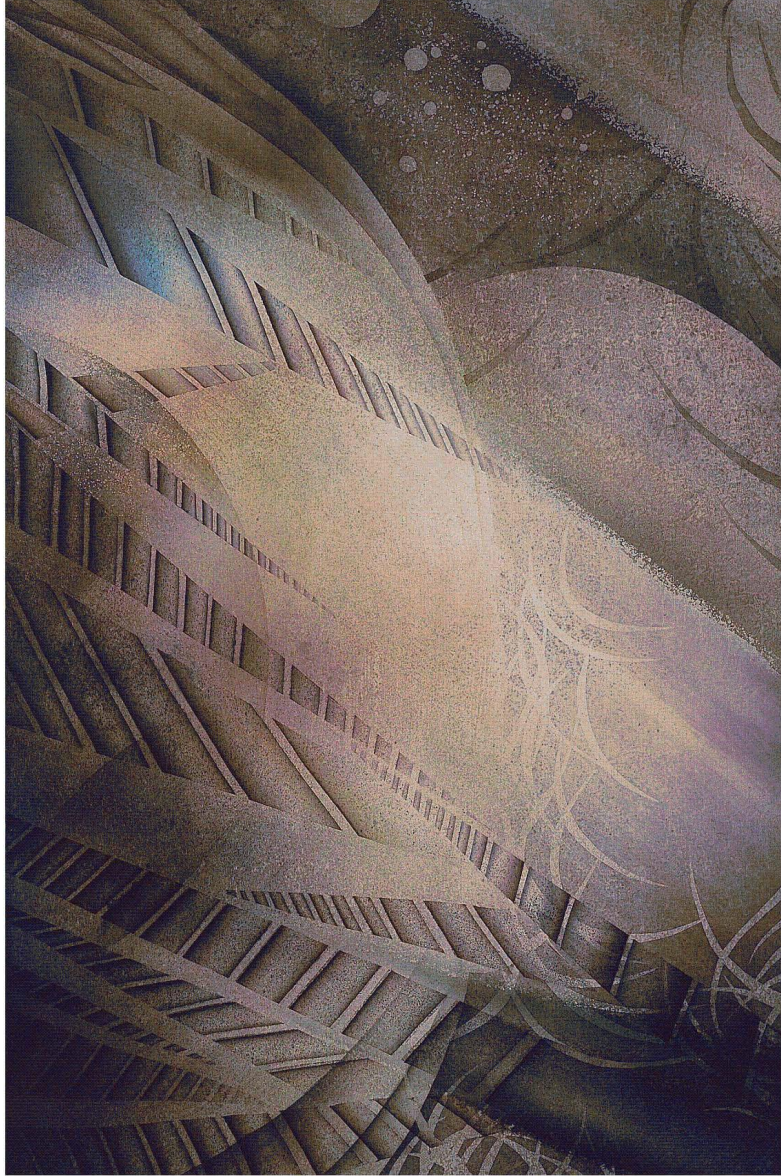
시간이란 지속적인 변화며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각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형상에 시간의 흔적을 도입하여 단위 개체들을 실재의 공간 안으로 끌어들었다. 하나 하나의 존재는 그 무수한 반복과 변화의 과정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적인 행위와 반복적인 개체가 축적되어진 것이다. 계속 변화하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작업과 일상 속에서 체험된 시간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화면 전체에 나타나는 형태들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매체로서 크기 변화와 방향성을 통해 시간의 경과와 인식의 변화를 시간의 흔적으로 표현하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단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단위들이 무한히 배가될 수 있을 것을 동시에 암시하여 준다.

배경전체의 청색(Blue)은 순수에 대한 동경과 따뜻함으로 인간이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 등의 기분 상태의 평온함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내면의 정신적 의미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하단의 보라색(Violet)과 녹색(Green)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세월의 흔적으로 나타내고 회색(Gray)톤의 여백을 남겨둠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표현하였다.

【작품 5】 시간의 흐름속으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118×80cm, 2004

【작품 5】 시간의 흐름속으로 (2004)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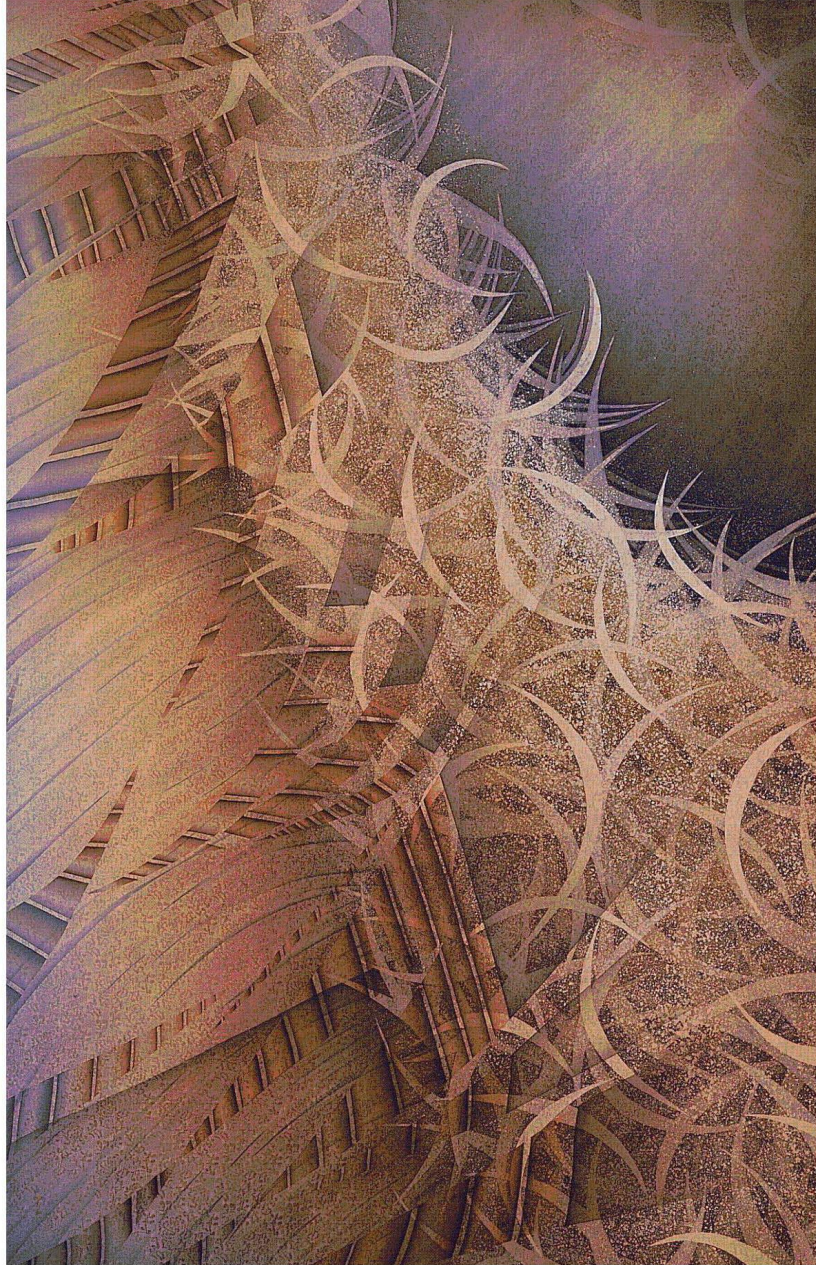
크기 : 118×80cm

이 작품은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본인 자신의 내면세계를 나타낸 작품이다.

시간을 통해 얻어진 기억에서 괴로웠던 기억들은 마음속에 한줄기 어두움으로 자리 잡으며 그 고독함을 더해간다. 그러므로 상처로 멍들고 슬펐던 기억들을 시간의 흔적으로 남기고 그 곳에서 탈출하고자 자아의 내면을 나타낸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배경 화면을 어두운 회색(Gray)계의 무채색으로 표현한 것은 그러한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덮어버리고픈 마음을 상징화한 것이다. 반원 안에 비치는 듯 보이는 얇게 드러나는 색들은 지난 어두운 과거조차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일상으로부터 일탈(逸脫)하여 자유스럽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현재의 시간을 표현한 것이고, 가운데 환한 빛으로 밝게 표현되어진 부분은 눈부신 빛과도 같은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 배경화면 위에 드러나는 반복적인 모티브들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느꼈던 기억의 잔재를 상징화한 것이다.

본인은 이 작품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의 시간들을 위하여 이 어두운 현실에 숨겨져 있던 자아가 밝은 빛과 희망을 찾아가는 내면의 자유로운 심적 상태를 표출한 것이다.

【작품 6】 시간의 흔적



견섬유(Silk), 산성염료, 127×75cm, 2004

【작품 6】 시간의 흔적 (2004)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127×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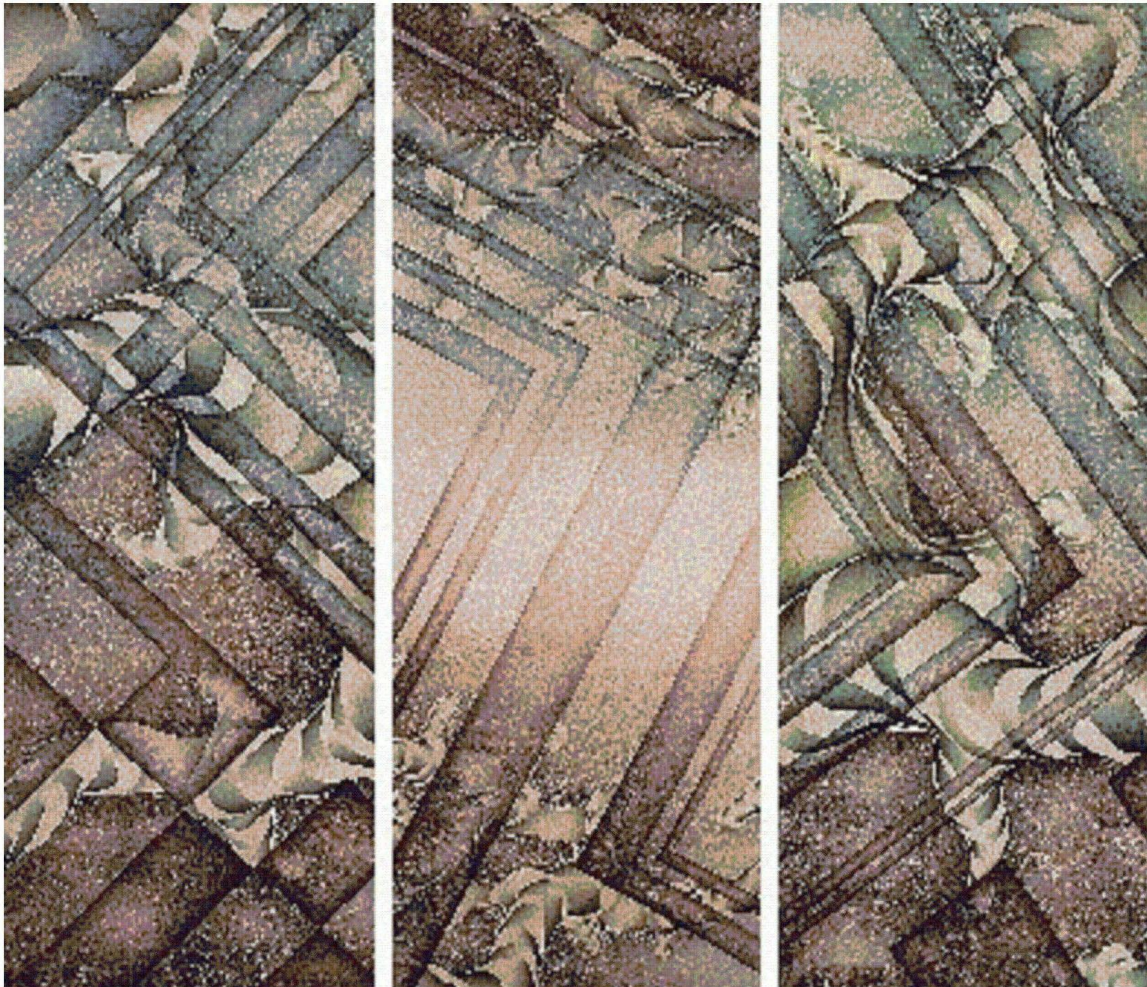
“오늘 내가 바라본 풍경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늘의 모습에 과거의 시간이 들어있다. 과거의 시간이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이다. 자신의 삶과 인연이 있었던 그 시간들은 때론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이 되어 소멸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금 부재(不在)하는, 공허(空虛)하고 무상한 세월과 시간의 아스라한 잔재들, 파편들뿐이지만 시간의 흔적은 존재 안에 쌓임을 표현한 작업이다.

이 작품은 과거의 흔적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과정으로 시간의 경과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간은 역동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면을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공간으로 나누어 그 흐름을 연결하였으며 미래가 비록 현재에 직접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모든 진행 과정이 역동적인 삶을 전개하는 것이다.

화면전체에 빛이 주는 이미지의 황색(Yellow), 오렌지색(Orange), 갈색(Brown)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독립적인 자신의 주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청색(Blue)은 미래의 꿈을 이끄는 명상적이며 신비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작품 7】 시간과 공간



견섬유(Silk), 산성염료, 153×62cm×3, 2004

【작품 7】 시간과 공간 (2004)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153×62cm×3

한 공간은 존재가 그 곳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존재의 공간으로 만들어져간다. 그렇게 그 공간에 의미가 생기게 되며 지금의 공간은 존재가 지내온 시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현대물질 문명의 숨막히고 답답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자아의 마음을 무한히 펼쳐지는 공간 안에서 시간의 흔적으로 상징화하였다.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운동감있는 형상은 하나의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하여 그 형태들이 이어져 순서적으로 그려지는 형상을 통해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시간이란 주제를 직선의 중첩된 대상들의 투명성을 통해 나타내었으며 선과 선의 간격, 선의 길이 등의 변화로 공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 매체로 그 흐름을 이미지화하였다. 작품에서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의미라기 보다는 조형적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암시적 공간으로 무한한 희망을 담아 내면의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칼라로 사용한 녹색(Green)은 과거와 현재까지 포함하여 성장해나가는 색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하는 긍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며, 갈색(Brown)은 따뜻하고 생동력 넘치는 건강한 일상의 삶을 표현하여 존재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8】 시간 속으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163×74cm, 2004

【작품 8】 시간 속으로 (2004)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163×74cm

인간의 삶이란 참 멀고도 기나긴 시간의 여행이다. 그 많은 순간 순간의 시간마다 수많은 일들과 감정들이 변화하고 반복되며 살아간다. 때론 행복감으로 때론 슬픈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배경 위에 드러나는 하나 하나의 형태들은 한 척의 배처럼 바다 위를 항해하듯 표현하여 자아의 내면을 나타내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는 무한으로 향하는 출발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온갖 시련과 고통을 안고서 흘러가는 자아의지의 표상이 될 수도 있다.

작품 배경에 반원형들의 겹쳐있는 형상은 자신이 지내온 상황들을 포함한 오랜 시간의 흔적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과 그 흐름이 지속되면서 축적된 이미지로 시작도 끝도 없는 시. 공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축적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행위,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일정한 방향을 지닌 선들의 표현으로 삶의 지속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그림 하단의 자유로운 필치의 적색(Red)은 활기차고 능동적인 움직임의 표현으로, 무한한 힘과 꿈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상단의 청색(Blue)은 순수와 꿈에 대한 동경을 의미한다. 또한 눈부신 날을 기다리며 보다 밝은 미래의 시간에 대한 기대를 꿈꾼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인간존재의 조건이며, 지속적인 변화와 흐름에 따른 존재이다. 흘러가는 시간은 그 안의 존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축적되므로 시간의 흔적을 남기며 존재하는 것이다. 그 결과 본인은 시간의 흔적을 통한 현 존재의 일상성과 역사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무명의 어떤 존재를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각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시간의 단면들, 그 부분적인 파편들로 자리잡고 있는 시간의 흔적들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에 따른 표현 방식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아름다웠노라고 말한다. 그 순간 지금이 어떻게 과거로 흘러가는지 의식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래서 본인은 반성,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과거 시절의 의미가 담기도록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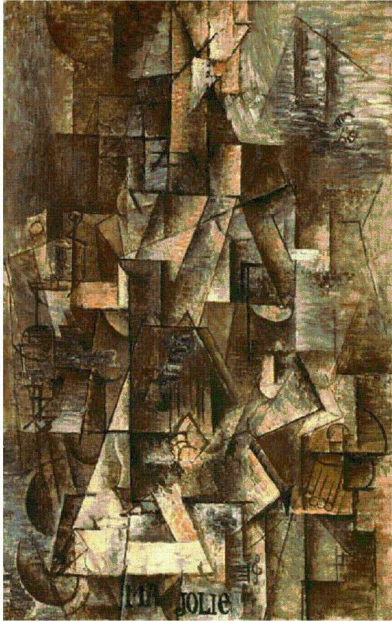
본인은 작품연구를 통해 막연했던 개념적 사고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자신의 관심을 어떻게 실제표현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조형적 언어를 찾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작업에 반복된 요소와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공간은 기억이라는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비롯되어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함한 의미의 시간이다. 작품의 이

면에 나타난 시간이라는 의미는 축적된 시간의 흔적으로 공간 속에 남아있고 이것은 반복과 중첩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나간 시간은 우물을 펴 올려 지금의 목마름을 해소하듯 앞으로 걸어나갈 힘을 얻고자 함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관적인 시, 공간 속에서 축적된 기억들을 통해 연상된 이미지를 시간의 흔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총체적인 경험을 이미지들의 시간의 흔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앞으로의 작업에서 좀 더 깊이를 더해 가는 접근 방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수단을 다양한 각도로 탐색하고, 더욱 발전 시켜 개인적인 작품세계에 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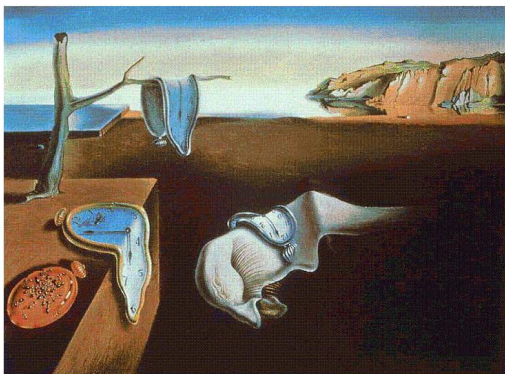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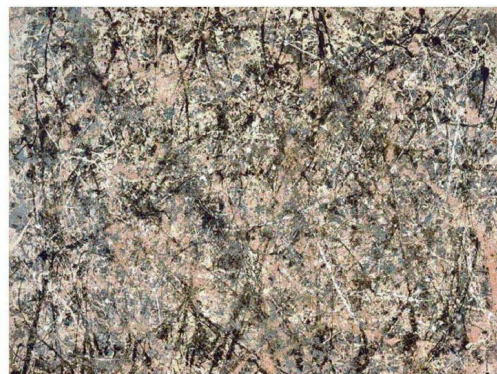
【도판 1】 Pablo Picasso,
<나의 꿩>
캔버스 유채, 100×65.4cm, 1911



【도판 2】 Giacomo Balla,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
캔버스 유채, 90.8×110cm,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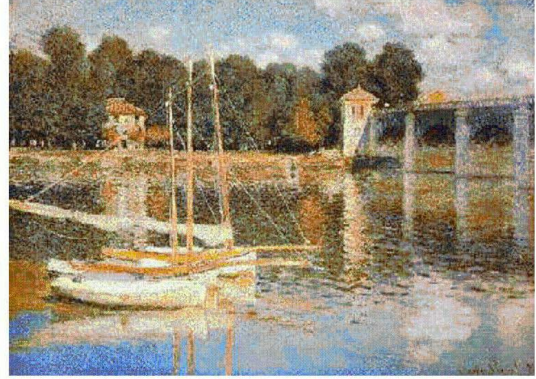
【도판 3】 Salvador Dali,
<기억의 영속성>
캔버스 유채, 24×33cm, 1931



【도판 4】 Pollock, Paul Jackson,
<라벤더 안개 : 넘버1>
캔버스 유채, 221×300cm,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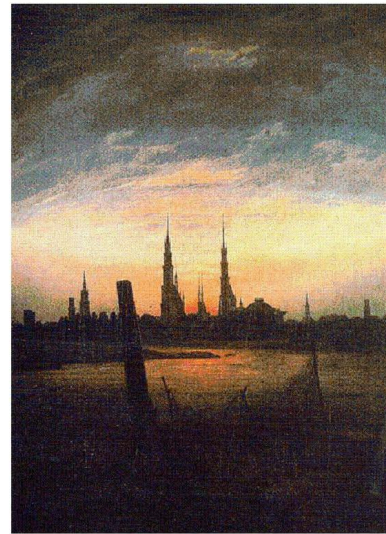
【도판 5】 Vincent Van Gogh,
<론강의 별 달밤>
캔버스 유채, 72.5×92cm, 1888



【도판 6】 Monet, Claude,
<아르장퇴유의 다리>
캔버스 유채, 480×357cm, 1874



【도판 7】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전함 테메레르>
캔버스 유채, 90.8×122.6cm, 1829



【도판 8】 Friedrich, Caspar David ,
<도시의 월출>
캔버스 유채, 458×620cm, 1817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외국문헌]

- 로버트 그루딘. 「시간 그리고 삶과 예술」, 박창옥 역, 정음사, 1985
- 랭거, 수잔 K.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고려원, 1993
- 모리스, R. 「시간의 화살」, 정윤근, 김현근 (공역), 소학사, 1989
- 메이탄드 게이브. 「디자인과 색채」, 배만실 역, 이화여대 출판부, 1983
-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론」, 최민수 역, 성바오르출판사, 1968
- 힐슈베르커. 「서양철학사 하권, 근세와 현대」, 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1996
- E, 클랭. 「시간」, 박혜영 역, 영림카디널, 1997
- Leonard Shlain. 「ART & PHYSICS」, 김진엽 역, 도서출판국제, 1995
- 서재행. 「공예염색기법」, 미진사, 1994
- 이재선. 「한국의 현대염색」, 미술문화, 2001
- 조용한. 「예술과 철학」, 경문사, 1983

[학위논문]

- 김윤주. “시간으로 표현한 선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4
- 박진영.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오브제의 조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92
- 장윤경. “작품<지나간 시간의 의미>에 관한 조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99
- 지연수. “시간의 이미지를 위한 추상적 표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0
- 황덕연. “시간을 주제로 한 시각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허승환. “시간의 흐름에 관한 표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ABSTRACT

The Study on Imaginary Expression through the Trace of Time

- Centering around My Dyed Work -

Seo, Yu Min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 work is something to make visual image to human experience. The process of visualization of image can be viewed as the channel by which human can find a variety of molded languages accumulated in human himself. Therefore, art is the beginning from ego and a kind of unique expression produced one by one from the depth of ego.

Writer of this thesis has been interested in each time of human life as a type of suggestion of visual image expression to human expression. Time is something neither visible nor sensible. Obviously, once time passes away, it becomes something unseizable. But past is never something disappeared. In the present memory, time can not

only arise beautiful but also be a kind of essential foundation to predict w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Like this, human being, regardless of whether a person is male or female, believes the existence of the past by memory of something passed away and acknowledge the existence in the future with expectation. Such a time is the cause of human existe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show the process of accumulation of time in realities on the bases of thought that passed time can be discovered in the existence of the present and express the marks and traces of time by such a process, which is based upon a kind of molded artistic expression by empathizing writer's image.